

한일간 호칭어의 대조연구*

-집단 토크쇼 방송을 중심으로-

백이연** · 박효경***

〈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n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Japanese: focusing on group talk shows

This study mainly concerns the appellations in talk shows of Korea and Japanese. It is widely known tha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are reflected in the terms of address of each country, and that especially the use of first(or second) person pronouns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differ from those of the West. Although talk shows contain private discourses on private topics, as they are conducted in a public domain, they can provide useful material.

We extracted a total of 378 terms of address which were used in 5 episodes of Korea's talk show "Radio star", and a total of 309 terms of address used in 5 episodes of Japan's talk show "Syabekuri 007". The extracted appellation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 those containing the name, pronouns, kinship terms, and others.

There are many common features in the use of the terms of addr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the terms of address "~ssi" and "~sang", which are combined with the name, are most commonly used, and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the expressions. Second, 15 percent of the pronouns (personal pronouns and demonstrative pronouns) were extracted from each country's talk show, and those are usually used when people tell light-hearted jokes. On the other hand, many differences were also observ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erms of address. For example, the terms of address combined with the name are more commonly used and have more variations in Japan's talk show than in Korea's one, and kinship terms are more commonly used and have more variations in Korea's talk show than in Japan's one.

Field : Pragmatics

Keywords : Terms of address, Reference Form, Kinship Terminology, Korean Japanese Contrastive Linguistics, Talk Show

1. 들어가며

사람은 대화를 통해 그 장소에 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며 이 대화에서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을 끊임 없이 부르고 소환한다. 사람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시작이다. 사람을 부르지 않고는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연구교수, 일본어학

***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본어학과 조교수, 일본어학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며, 사회적 관계를 쌓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과 상대를 언급하는 말은 어떤 언어든 빈도가 높은 기본어이며,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 사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어휘,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되는 어휘라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사람을 부르는 말에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장소, 때 등의 배경이 반영되며, 이는 언어나 문화권에 따라 변화된다. 스즈키(1973)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어휘인 인칭대명사의 근본적인 개념이 서구어와 일본어에 있어 다르다고 지적한다. 영어의 I와 you는 단지 '화자'와 '청자'를 지시하는 중립적 개념으로, 대상, 때, 장소와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대화자간의 관계가 어떻든지 I가 발화를 하고 you가 들으며 다음 턴에서는 대칭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바뀌어 I와 you가 사용된다. 반면 일본어의 경우, 'わたし/ぼく/おれ' 'あなた/きみ/おまえ' 등 다양한 1인칭과 2인칭이 존재하며,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지위, 성별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칭대명사도 실제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며 (1)에서 보듯이 직책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고유명사(성명)가 대화에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 (1) a. おとうさん¹⁾のいうことを聞きなさい。
 b. (?)ぼくのいうことを聞きなさい。(스즈키, 1973)

이러한 스즈키의 지적은 한국어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한국어 역시 '나/저' '당신/그대/너' 등 다양한 인칭대명사가 존재하지만, 실제 대화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는 선생님, 아버지, ~씨 등 명사나 성명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호칭어는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규정한다.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서로를 부르는 말을 연구하는 것은 대화자간의 인간관계는 물론 해당 문화권의 삶과 사회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호칭어에도 차이점은 존재한다. 특히 친족명사는 어느 언어권에서나 호칭으로 사용되지만, 한국어의 경우 (2a)와 같은 사회적 확장이 폭넓게 관찰되는 반면, 일본어는 그렇지 않다. 또한 (2b)와 같은 장면에서의 2인칭 '선생님'의 사용범위 또한 일본어와 한국어에 차이가 있음은 몇몇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²⁾.

- (2) a. (학교 선배에게) 누나, 숙제 하셨어요?
 b. (경찰관이 시민에게) 선생님께서는 지금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한일 양국 텔레비전 토크쇼의 실제대화를 대상으로 서로를 부르는 말을 분석하고, 양국의 호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성별, 사회적 위계 등이 양국의 언어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언어 뿐 아니라 양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고찰하고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함을 꾀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밑줄은 본 연구의 필자에 의함. 이하의 예문에도 공통된 사항이다.

2) 김광순(2015), 이승민(2011), 박경(2007)등의 연구에서는 친족명과 '선생님'의 확장된 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 선행연구

한국어 및 일본어의 호칭 연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호칭’의 범위 및 분류이다. 사람을 부르는 말은 크게 ‘호칭어’와 ‘지칭어’로 나누며, 호칭어(term of adress)란 화자가 대화의 상대를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들을 말한다(왕한석 2005:17). 지칭어란 대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그 범위 및 분류가 애매한 점이 있어 여러 연구에서 호칭어의 개념과 분류를 정립하려 노력해 왔다.

박정운(2005)은 한국어 호칭을 이름, 직함, 친족어, 대명사, 기타로 나누고 ‘기타’에는 ‘여보세요’ 등 ‘호출어’를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손춘섭(2010)은 지금까지 호칭어, 호출어 등이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호칭어를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말’로 정의하며,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데 쓰는 말 곧 지칭어나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이봐요’ 등의 표현(호출어)은 호칭어로 다루지 않는다. 한편, 강주영(2009)은 ‘사람을 부르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호출어와 문장에서 독립된 호격만을 ‘호칭’으로 정의 내리고, 호격이 아닌 (3)과 같은 예는 호칭에서 제외한다.

(3)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회사에서도 자기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

일본어의 호칭에 대해서는 스즈키(1973)가 대표적인데, 스즈키는 인구어의 개념으로 일본어를 설명하기 힘든 점을 지적하고 상대를 불러 주의를 끄는 호격(voice use)은 물론 주어 혹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내용상 대화 상대를 나타내는 대명사적 용법(prominal use)을 포괄하여 ‘대칭(対称)’이라는 개념을 주장한다. 김준숙(2004, 2007)과 같이 가족 관계 및 직장 내에서의 화자와 청자 그리고 제3자의 대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안에서의 호칭어를 고찰하는 연구도 있다.

이처럼 호칭어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호칭어의 정의나 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집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대상으로 현장에 있는 대화 당사자가 서로 어떻게 부르느냐에 초점을 맞추므로 호칭과 지칭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대면 상황에 있는 상대를 언급하는 말’을 다룬다. 따라서 호격은 물론 주격, 목적격, 현장에 있는 당사자를 가리키는 지칭도 ‘호칭어’에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호칭어의 용법과 각 사용에 대해서는 대조연구를 통해 각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연구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유원호(2011)는 선생, 기자, 의사, 간호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업명 15개가 각 언어에서 호칭어 및 타이틀로 쓰일 수 있는지 설문 조사하였다. 대상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7언어로, 그 결과 한중일의 동양삼국은 인구어에 비하여 직업명을 호칭으로 쓰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어는 특히 그 경향이 강해, ‘간호사’ ‘작가’ ‘기자’ 등을 호칭 및 타이틀로 사용하지만 일본어에서는 그런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일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홍민표(1999, 2003, 2012, 2013)가 특히 상세한 양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부부간, 가족간, 인척간, 직장 내의 호칭을 조사해 유사해 보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호칭어의 차이점에 대한 폭넓은 고찰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林炫情(2001, 2003)에서는 친족간의 상하관계, 직장에서의 유사 친족명칭의 사용 양상의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칭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이승민(2011)은 한일대조연구로 ‘선생님’과 先生가 사용되는 상황을 상대의 직업별로 조사하였다. 한국어의 ‘선생님’과 일본어의 ‘先生’는 전형적인 호칭 대상인 교사와 의사에서부터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한국어가 보다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대조연구를 보면, 한일간 경어체계 등에 유사점이 많음에도 양 언어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조 연구는 특정 장면을 가정하고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많고, 실제 대화 자료에 근거하여 언어 사용의 용례를 조사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성격의 텔레비전 토크쇼를 대상으로 실제로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부르는지를 조사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를 논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일의 텔레비전 토크쇼 프로그램, 특히 여러 명이 출연하는 '집단 토크쇼'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호칭에 대하여 연구한다. 토크쇼는 그 사회의 실상과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토크쇼 진행자나 출연자는 그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대화 주제는 일반 시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다. 나미수, 조준모(2011)는 토크쇼의 대화를 자연스러운 회화이면서도 어느 정도 통제된 공적인 상황의 대화라고 정의한다. 뉴스나 드라마와는 달리 가장 일상 대화에 가까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대화가 일상의 대화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방송사의 의도적인 기획 하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크쇼는 논픽션이면서도 픽션이고, 대화는 대부분 '사적인 화제'들이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토크쇼는 그 시대 해당 언어 화자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상어를 반영하고,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가 교차하여 여러 층위에서 해당 사회의 언어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라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다수의 인원이 등장하는 토크쇼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호칭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대상이 된 한국 방송은 '라디오스타', 일본 방송은 '사베쿠리007' 5회분이다. '라디오스타'는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시간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 수요일 11시 10분~12시 30분까지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4명의 남성 멤버가 2명 이상의 게스트를 맞이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고정 멤버인 4명은 김구라(40대), 윤종신(40대), 김국진(50대 초반), 규현(20대 후반)으로 구성된다. 일본 프로그램 '사베쿠리007'은 비슷한 시기인 2008년 7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며 역시 몇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 월요일 밤 10시~11시에 니혼테레비 계열에서 방송된다. 고정 출연자 7명이 매회 게스트 2명 이상을 맞이하여 대화를 나눈다. 고정 출연자는 평소 그룹으로 활동하는 소위 '계닌³⁾'으로 나구라 준(40대), 하라타 타이조(40대), 호리우치 켄(40대, 이상 넵툰), 아리타 텃페이(40대), 우에다 신야(40대, 이상 크리무 시츄), 도쿠이 요시미(40대), 후쿠다 미쓰노리(40대, 이상 추토리알)이다.

두 방송은 비교적 연배가 있는 남성 코미디언 혹은 방송인이 다양한 게스트를 맞이하여 준비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화제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일 심야시간대에 남성 고정출연자가 준비된 소재로 복수의 다양한 게스트와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두 프로그램은 유사점이 많다. 또한 각 토크쇼에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사람이 등장하며, 공적인 방송 프로그램이므로 격식 있는 대화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출연자 간 친분 등에 따라 사적인 어투로 스피치 레벨 시프트⁴⁾가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때 호칭의 변

3) 계닌(芸人): 이전에는 라쿠고, 연극, 가극, 무용 등 연예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4) 石崎 (2000: 62) 에 의하면 스피치 레벨 시프트란 동일 담화 내에서 문말에 정중체와 보통체가 혼용되거나 대화 상대방이나 담화 상황, 화제에 따라 문말 표현에 변화(shift)가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화도 함께 일어난다. 즉 다양한 관계와 층위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관찰, 고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공통된다.

각 방송 중 토크쇼 진행 시간은 한국이 약 60분, 일본이 약 30분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방송의 경우 시작부터 30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데이터량을 맞추었다. 대상 데이터 5회분은 게스트가 다양한 연령, 성별이 되도록 샘플링 했으며 게스트 연인원은 한국 측 22명(여성 10명, 남성 12명), 일본 측 20명(여성 12명, 남성 8명)이다. 연구 대상이 된 회차 및 출연 게스트의 상세는 <표1>과 같다.

<표1> 분석 대상 토크쇼 게스트 일람

날짜	라디오스타	날짜	샤베쿠리007
2015/ 11/25	나르샤(여, 가수, 30대) 박준면(여, 배우, 30대) 홍윤화(여, 개그맨, 20대) 황미영(여, 배우, 30대)	2013/ 07/29	モーニング娘。 道重さゆみ(여, 가수, 20대) 鞘師里保(여, 가수, 10대) 鈴木香音(여, 가수, 10대) 譜久村聖(여, 가수, 10대) 生田衣梨奈(여, 가수, 10대) 飯窪春菜 (여, 가수, 10대) 石田亜佑美 (여, 가수, 10대) 佐藤優樹 (여, 가수, 10대) 工藤遙 (여, 가수, 10대) 小田さくら(여, 가수, 10대)
2016/ 01/13	김숙(여, 개그우먼, 40대) 황제성(남, 개그우먼, 30대) 곽시양(남, 배우, 20대) 하니(여, 가수, 20대)	2016/ 02/01	長瀬智也(남, 배우, 30대) 宮藤官九郎(남, 연출가, 40대)
2016/ 03/09	우현(남, 배우, 50대) 김성은(여, 배우, 30대) 나나(여, 가수, 20대) 김태진(남, 가수, 40대) 황의준(남, 가수, 40대)	2016/ 04/18	大泉洋(남, 배우, 40대) 有村架純(여, 배우, 20대)
2016/ 05/25	하석진(남, 배우, 30대) 김지석(남, 배우, 30대) 한혜연(여, 스타일리스트, 30대) 한혜진(여, 모델, 30대)	2016/ 05/23	二階堂ふみ(여, 배우, 20대) 山崎賢人(남, 배우, 20대)
2016/ 06/01	젝스키스 은지원(남, 가수, 30대) 강성훈(남, 가수, 30대) 이재진(남, 가수, 30대) 장수원(남, 가수, 30대) 김재덕(남, 가수, 30대)	2016/ 07/11	E x i l e 橘ケンチ(남, 가수, 30대) TAKAHIRO(남, 가수, 30대) 佐藤大樹(남, 가수, 20대) 三代目 ELLY(남, 가수, 20대) 山下健二郎(남, 가수, 20대) 登坂広臣(남, 가수, 20대)

이상의 회차 총 5시간 분량(30분*5화*2종)에 대하여 방송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상대를 부르거나 언급한 부분을 문자화한 뒤 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고찰한다.

단, 본 연구는 집단 토크쇼의 특징 상 호칭과 지칭을 구분하기 힘든 대화가 등장한다. (4a)의 경우 명백히 호칭이나, (4b)의 경우, 김구리를 향해 말한다면 호칭, 다른 출연자를 향해 말한다면 지칭이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애매하고, 김구리를 포함한 복수의 출연자에게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 (4) a. 김구리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 b. 김구리씨가 그 때 그렇게 말했죠?

본 연구는 한 공간 안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상대방을 서로가 어떻게 부르냐에 초점을 맞추므로, 굳이 호칭과 지칭을 구분하지 않고 호칭어로 통합하여 다룬다. 그러나 현장에 없는 사람에 대한 지칭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대면상황에서 눈 앞에 있는 상대방을 언급하는 말'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4. 결과 및 고찰

'라디오스타'와 '사베쿠리007' 각 5회분의 방송에 등장한 호칭의 종류 및 빈도수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표2>와 같다. 호칭의 분류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이름, 대명사, 친족명, 직함이 포함되는 것은 공통된다⁵⁾. 본 연구의 대상은 연예인 동료끼리의 대화로 '직함'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이름, 대명사, 친족명, 기타로 나누었다. 단, '국진이 형'과 같은 이름+친족명의 경우 친족명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⁶⁾.

<표2> '라디오스타'와 '사베쿠리007' 호칭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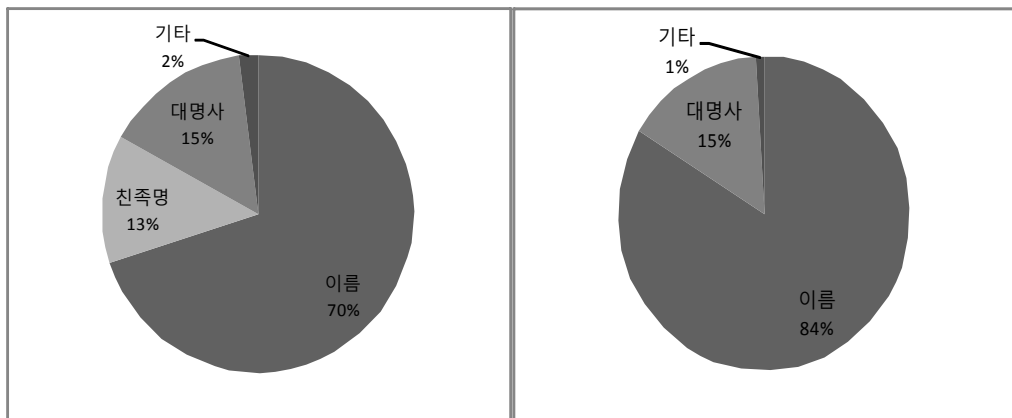
		한국(라디오스타)		일본(사베쿠리007)	
이름	성+이름+씨	142	성+이름+さん	15	
			성+さん	112	
	이름+씨	31	이름+さん	16	
			이름+ちゃん	10	
	이름+양	2	성+くん·이름+くん	38	
	성+이름+0 ⁷⁾	36	성+이름+0	4	
		성+0	27		
	이름+0,이,아,야	53	이름+0	19	
			별명	18	
대명	너/너희	24/1	あなた/あんた	6/3	
			きみ/おまえ	5/21	

5) 박정운(2005), 김준숙(2007), 손춘섭(2010) 등 호칭어에 관한 대다수의 논문에서 호칭어의 분류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고유명사(이름 혹은 성명), 친족명, 대명사, 기타의 4가지는 꼭 포함되어 있다.

6) 본 연구에서 '이름+언니', '이름+형'등을 이름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않고 친족명으로 분류한 것은 대면상황에서 '언니' '형'으로 호칭한 것과 '이름+언니', '이름+형'으로 호칭한 것의 대화 안에서의 기능에 차이가 없었으며, 복수의 대화참가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부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친족명으로 분류하였다.

사	본인	5	こいつ/この野郎/この人	1/1/1
	이 친구/이 분/ 이 사람	9/1/1	あいつ	1
	애	7	本人	2
	그쪽	1	自分	4
	여러분	1	みんな	1
친 족 명	형,형님	23	パパ	1
	언니	18		
	오빠	16		
기 타	대표님	1	팀이름+さん	1
	간부님	1		
	선생님	2	相方	2
	선배님	3		
계	378		309	

전체적으로 한국어의 경우 378회, 일본어 309회가 수집되어,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대화 상대를 명시적 언어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상대를 부르거나 언급하여 주위를 환기하기도 하지만 눈짓이나 제스처로 대화 상대를 지목하는 예가 빈번히 관찰되었다. 양쪽 모두 가장 많은 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한국어 264회, 일본어 259회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어의 경우 그 다음이 대명사(57회), 친족명(50회) 순이었다.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이름을 이용한 다양한 호칭이 존재하여 9종에 이르는 변화를 보였으며, 대명사 호칭이 그 뒤를 이었다. 친족어는 1례만이 관찰되어, 한국어에 비하여 이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상기 결과를 카테고리별 비율로 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한국어의 비율(좌)과 일본어의 비율(우)

양국어 모두 이름을 사용하는 언급이 가장 많았으나 한국어는 상대적으로 친족명이나 대명사와 같이 대화

7) '+0'이란 이름 뒤에 '~씨, ~군, ~양 등의 표현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어의 경우 呼び捨て에 해당한다.

자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어휘가 일본어보다 높은 비율로 등장하였으며, 일본어의 경우 서로 간 이름을 넣은 명칭을 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어는 이름을 이용한 바리에이션이 한국어보다 다양하므로 이는 어떤 의미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이하 카테고리 별로 살펴보겠다.

4.1 이름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대에 대한 표현은 ‘성+이름+씨’(142회)였다.

- (5) a. 김국진: 하석진씨, 한혜진씨랑 소개팅을 할 뻔 했어요? (2016/5/21)
 b. 규현: 그럼 강성훈씨가 원하는 멤버들로 구성된 건가요? (2016/6/1)

(5)에서 보듯이 성별, 연령 등 서열과 관계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현대 한국어의 일상 대화에서 ‘~씨’는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이는 호칭으로, 손윗사람에게 사용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방송에서는 비교적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성+이름+씨’의 형태가 빈번히 등장하였다. 이는 ‘토크쇼’라고 하는 하나의 공적인 장소에서는 ‘~씨’가 가장 공식적이고 대등한 호칭으로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름+씨’의 형태도 31회 등장하였다.

- (6) a. 김국진: 지석씨가 외국어 능력자네. 영어하고 독일어 교원자격증이 있다고.
 (2016/5/25)
 b. 윤종신: 성은씨가 유난히 슬림하고 얼굴이 작아.(2016/3/9)
 c. 한혜연: 혜진씨가 예를 들어 포즈를 하고 있다고 한다嘛..(2016/5/25)

‘이름+씨’의 경우는 위의 ‘성+이름+씨’에 비해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성+이름+씨’에 비해 공식성이 떨어지고 보다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6a)와 (6b)를 보면 문말표현도 이에 대응하여 보통체를 사용하고 있다.

‘~씨’ 없이 ‘성+이름’(36회)만 부르거나 ‘이름’ 혹은 ‘이름+호격조사’(53회)를 쓰는 예도 많이 있었다. ‘성+이름’의 경우 (7)과 같이 소개를 하거나 본인을 앞에 놓고 그를 설명하는 경우에 쓰이는 일이 많았다. 즉 인물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설명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할 수 있겠다.

- (7) 윤종신: 한혜연, 한혜진 두분은 자매처럼 패션계의 절친이라고 합니다.(2016/5/25)

이처럼 토크쇼는 주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씨’를 붙이지 않고 이름만을 부르는 것도 53회 있었는데, 이는 특히 (8)과 같이 상대방에게 면박을 줌으로서 쇼 분위기를 전환하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적인 ‘토크쇼’ 안에 평소의 사적 친소관계가 반영된 예라 할 수 있는데, 모두 연장자가 보다 연배가 어린 대상을 부를 때 사용되어, 한국의 경우는 특히 나이가 권력 관계에서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 (8) a. 김구라: (출연진의 ‘망가진 사진’을 보며 웃는 코너에서 규현의 비교적 정상적 사진이 나오자) 규현이도 로비했네.(2016/3/9)

b. 윤종신: (출연자 황제성이 이야기를 길게 끝자) 제성이 얘기 때문에 숙이 질문하고 시양이 질문이 다 날아갔어, 지금.(2016/1/13)

이처럼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관계가 얽혀 있는 토크쇼라는 특징 상, 동일 화자를 향해 호칭에 변화가 일어나는 예가 많이 관찰 되었다. (9a)와 같이 동일 회차에서 김구라는 출연자 은지원을 ‘성+이름+씨’의 가장 공식적인 형태로 부르다가 (9b)와 같이 친숙함을 담은 호칭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문발표현도 그에 호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9) a. 김구라: 사실 예전에 은지원씨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2016/6/1)

b. 김구라: 지원아, 내가 얘기 괜히 꺼낸거니? (2016/6/1)

‘~씨’ 외에 ‘~양’을 붙이는 용례가 단 두 번 등장하였으며, 이는 (10)과 같이 고정 출연자 김구라가 출연자 ‘하니’에게 사용하였다. ‘~양’이라는 호칭은 최근에는 ‘~씨’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⁸⁾ 공식적 장면에서 ‘~양’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할 수 있다.

(10) 김구라: 내가 보니까 오늘 하니양이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2016/1/13)

이와 같이 한국어의 경우, ‘성+이름+씨’가 가장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호칭으로 쓰이며 그 다음으로 빈번히 등장한 것이 ‘성+이름’으로 이는 대상을 객관화시켜 언급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이었다. 성을 뺀 ‘이름+씨’는 보다 친근함을 나타내며 손아래 사람에게만 쓰이고,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하여 보다 가볍고 친근한 분위기의 ‘이름’만을 부르는 호칭을 쓰고 있었다.

일본어도 어느 정도는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단, 일본어는 ‘성+이름+さん’(15회)이 한국어의 ‘성+이름’(112회)과 유사하게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장면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11)과 같이 남성 사회자가 게스트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사용되었다⁹⁾.

(11) 本日のゲスト、大泉洋さんと有村架純さんです。(2016/4/18)

일본어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성+さん’으로, 한국어의 ‘성+이름+씨’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대화에서 상대에 대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2)는 우에다가 자신의 만담 파트너인 아리타를 가리켜 출연자에게 그의 개그를 좋아하는지 묻는 장면인데, 아리타에게 ‘さん’을 붙여 부르고 있다¹⁰⁾.

(12) 우에다: どういうところでそんなに有田さんのボケを(評価してる?) (2016/5/23)

보다 편한 상대에게 ‘이름+さん’을 쓸 수 있는 것은 한국어의 ‘씨’와 유사한 점이라 생각되며 이번 조사에

8) 서민정(2008:341)에서는 1940년대, 50년대와 2000년대의 한국어의 여성 지칭/호칭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린 여성에게 사용하던 ‘~양’이 점차 쓰이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9) 단, 주지하듯이 일본어는 물론, 인구어에서도 성씨에 존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이름에 존칭을 붙이는 한국어가 오히려 특이하다 할 수 있다.

10) 방송의 많은 부분에서 우에다는 자신의 파트너(相方) 아리타를 존칭 없는 성 혹은 별명으로 부른다.

서도 16회 수집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방송에서 ‘이름+さん’의 사용은 원래 그렇게 불리도록 약속된 인물에게 사용되거나(13a), 같은 그룹의 멤버(13b), 혹은 이름만을 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13c)와 같이 몇 가지 경우에 한정되었다.

- (13) a. 후쿠다(고정출연자): はい、泰造さん(고정출연자)、40でいまだにシャンディガフ頼みましたからね。(2016/4/18)
 b. 도자카(exile 멤버): ケンチさん(exile멤버)、どこ住んでるんですか。(2016/7/11)
 c. 우에다(고정출연자): タカヒロさん(exile멤버)とか自慢の筋肉は？あの、自分的には？(2016/7/11)

이는 さん에 비하여 친근한 존칭인 ちゃん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ちゃん으로 불리도록 약속된 고정 출연자가 계속 ちゃん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4a)의 나구라 준은 고정 출연자로 언제나 ‘潤ちゃん’으로 불리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한국도 일본도 토크쇼의 고정 출연자는 어느 정도 부여되는 캐릭터와 역할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그것이 명시적인 호칭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단, (14b)와 같이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여성 게스트의 경우는 ちゃん으로 불리는 예가 있었다. 이는 20대 초반의 남성 게스트에게 ‘くん’을 붙이는 것과 대칭되는 것이다. 젊은 게스트를 ~ちゃん 혹은 ~くん으로 부르는 것은 쇼가 시작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친숙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후였다.

- (14) a. 우에다: じゃ、潤ちゃんからいきますよ。(2016/5/23)
 b. 아리타: 架純ちゃんの声も聞いてあげて。(2016/4/18)

성 혹은 이름을 무존칭으로 부르는 것은 주로 고정 출연자끼리 혹은 남자게스트를 상대로만 이루어졌으며 소위 ‘つつこみ’, 즉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면서 공격하므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를 쓸 때가 많았다. 이 경우 서로간에 다소 과격한 농담을 할 수 있다는 친밀도를 드러내면서 존칭을 생략하므로써 공격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유도한다 할 수 있다. (15)를 보면 고정출연자인 우에다가 아리타를 놀리는 장면인데, (12)와는 달리 ‘~さん’을 붙인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15) 우에다: (일부러 스튜디오에 나온 강아지를 외면하고 있는 아리타를 보고) 有田もだっこしていいよ。(2016/4/18)

성+이름을 붙여서 무존칭으로 부르는 예는 지극히 드물지만 4회 관찰되었는데, (16)와 같이 대화 중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호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물로서 객체화 시킨 경우였다.

- (16) 호리우치: 同世代の女性よ！実物大の大泉洋が触ったら大問題ですよ。(2016/4/18)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축약형을 이용한 별명으로 상대를 부르는 예가 관찰되었다. 이는 (17a)와 같이 언제나 별명으로 고정되어 불리는 인물과 (17b)와 같이 다양한 호칭 가운데 가끔씩 별명(18회)으로 불리는 예가 있었다.

- (17) a. 아리타 : ホリケンは柔らかいって。(2016/5/23)
 b. 하라다 : 有пейかわいいよ。(2016/5/23)

4.2 대명사

대명사는 한국어와 일본어 양쪽 모두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크쇼의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상대방을 부르거나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2인칭 대명사¹¹⁾’의 용례가 주로 관찰되었다. 한국어 토크쇼에서는 ‘너/너희(25회), 여러분(1회)’과 같은 기존의 2인칭 대명사와 ‘이 친구/이 분/이 사람, 애, 그 쪽’(19회) 등과 같이 지시사+명사로 구성된 용례 그리고 원래 1인칭을 나타내던 명사가 전용된 ‘본인’(5회)의 용례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의 토크쇼 라디오스타에서는 이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것이 대명사였으며, 15%를 차지했다. 손아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너’와 ‘너희’가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주로 (18a)와 같이 고정출연자가 손아래의 고정출연자 혹은 게스트에게 사용한 용례가 많았으며, 가벼운 농담이나 상대방을 면박 줌으로서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의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18a)는 남성 간에, (18b)는 여성 간에 이루어진 대화이다.

- (18) a. 윤종신 : 야, 너(규현) 이거 콧물이니, 저거? (2016/3/9)
 b. 김숙 : 우리는 너(하니)를 보호해주마. 그쪽에서 담비면..(2016/1/13)

한편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 ‘본인’이 상대방의 호칭에 사용되었다. 주로 고정출연자가 게스트의 근황 토크와 같이 거리를 유지하며 질문을 할 때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손윗사람에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2인칭 대명사 ‘당신’ 대신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 (19) a. 김구라 : 본인(박준면)도 어머니 가게에서 머리해요? (2015/11/25)
 b. 윤종신 : 본인(홍윤화)이 좀 특수 분장을 하지 그랬어요. (2015/11/25)

2인칭 대명사 ‘당신’은 대우표현에서 손윗사람의 호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대화에서 부부사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는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인 말투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공식적인 토크쇼의 고정출연자 2명이 각각 다른 게스트에게 ‘본인’을 상대방의 호칭으로 사용한 것은 2인칭 대명사의 제한적인 사용법이 영향을 미친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이 친구’ ‘이 분’ 등도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 (20) a. 은지원 : 이 친구(이재진)가 뽀뽀 우기더라구요. 한도가 없다고 (2016/6/1)
 b. 김구라 : 이 사람(이재진) 방송 잘 하네(2016/6/1)

일본어의 경우, 1/2/3인칭 대명사와 같은 서구어의 대명사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

11) 박정운(2005)에 의하면 한국어에는 여러 형태의 2인칭대명사가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너, 자네, 당신, 그대만 을 2인칭 단수 대명사로 보는 연구, 위의 4가지에 자기, 임지를 추가하는 경우, 닻, 어르신 등을 추가하는 경우, 선생님까지도 2인칭 대명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었으며, 특히 2인칭 대명사 *あなた・きみ・おまえ* 등은 실제 대화에서는 오히려 많이 사용되지 않고 직책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고유명사(성명)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일본의 토크쇼 *사베쿠리007*에서 추출된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경우에 사용된 표현은 고유명사(성명)가 84%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였고,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것이 대명사 15%로 한국어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대명사로 분류한 용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あなた/あんた*(9회), *きみ*(5회), *おまえ*(21회)와 같은 2인칭 대명사와 복수형의 *みんな*(1회)가 사용되었고, *この野郎*(1회)~*この人*(1회)와 같은 지시어+명사, 그리고 *こいつ*(1회), *あいつ*(1회), *本人*(2회), *自分*(4회)과 같이 3인칭 혹은 1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대화 참가자를 부르는 데 전용되어 사용되었다.

각각의 경우를 문장의 예를 들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あなた*는 질문을 던질 때 환기 시키는 용법으로 사용하는 예가 나타났다. 고정게스트 중에서도 주로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우에다의 개인적인 언어 사용 양상일 수도 있지만, 한국어의 ‘당신’이 사용례가 없었던 것에 반해 6번의 용례가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인칭 대명사는 농담이나 *つつこみ*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あなた*의 용례는 토크쇼 진행을 위한 질문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21) a. 우에다 : あなた(여성모델)、普段こういう格好なさってますか。(2016/2/1)

b. 우에다 : あなた(모닝구무스메 여성 멤버)なんかこう、昔のモーニング娘ね、昔というか、過去のねああいう人のポジションになりたいというイメージとかあるの? (2013/7/29)

*あなた*이외에 *あんた*도 사용되었으나 주로 사회를 맡은 고정출연자 사이에 ‘*つつこみ*’를 하거나 고정출연자가 게스트와의 대화에서 ‘*つつこみ*’를 할 때 주로 나타났다.

(22) a. 우에다: あんた(다치바나,exile멤버)の引き出し、ドラゴンボールだけなのか。(2016/7/11)

b. 우에다 : あんた(오이즈미)に言われたくない! あんたに! (2016/4/18)

*きみ*와 *おまえ*도 또한 고정출연자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 받을 때 혹은 고정출연자가 게스트를 대상으로 ‘*つつこみ*’를 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おまえ*는 ‘*つつこみ*’의 표식으로서 기능한다 할 수 있다. 즉 대화 중에 *おまえ*가 등장하면 대화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 문장은 ‘*つつこみ*’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23) 우에다 : エリー(exile 멤버)どう、これ? ちゃーはん美味しいといえ! 君はちゃーはん勧めたじゃん!
(2016/7/11)

(24) a. 나구라 : (고정출연자들의 야유에 대응하여) くら、お前ら! (2015.6.5.23)

b. 우에다 : バカか、お前(오이즈미)は、何真剣に答えてるんだ。(2016.4.18)

한편 한국의 토크쇼 라디오스타에서 원래 1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던 ‘본인’이 2인칭 대명사로서 기능하는 용례가 나타났는데 일본의 *사베쿠리007*에서도 *本人*이 등장하였으며, *自分の* 용례도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대명사들이 주로 농담이나 ‘*つつこみ*’의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면 *本人*과 *自分*은 고정출연자가 게스트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거나 언급을 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유사하다.

(25) 방송스텝 : ご本人(오이즈미)からVTRをぜひ娘さんに。(2016.4.18)

(26) 우에다 : ご自分(아리무라)でも変わってきたという実感はありますか。(2016.4.18)

일본의 대명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발화자의 성별이다. 호칭으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남성 발화자였다. 2013년 7월의 모닝구무스메가 나오는 편에서는 게스트가 모두 여성이었는데 서로를 부를 때 이름+さん 등의 이름이 들어간 호칭을 사용하였고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를 한 용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사베쿠리007은 대화를 이끄는 고정출연자가 전원 남성이다. 이와 같은 특징이 주위를 환기하고 화제를 제시하는 사회자의 담화적인 특징인지, 혹은 성별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4.3 친족명

친족명은 한국의 토크쇼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의 토크쇼에서는 1개의 용례밖에 나오지 않았다. 한국어의 친족명은 고정출연자끼리의 대화에서도, 고정출연자와 게스트간의 대화에서도, 게스트끼리의 대화에서도 등장하였다.

(27) a. 김구라: 나랑 국진이 형이랑? 한번 해 보자 형. (2016/5/25)

b. 강성훈: 저하고 지원이 형이 이제 듀엣으로 결성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2016/6/1)

(28) a. 홍윤화 : 언니(박준면), 저 사임당 언니 아역으로 오디션 봤었어요. (2015/11/25)

b. 나나 : 구라 오빠는 제가 라디오 스타에 나올 때 마다 잘 챙겨 주셔서(2016/3/9)

(27)의 예는 남성 고정출연자와 남성 게스트가 사용한 친족명이고 (28)은 여성 게스트가 사용한 친족명이다. 모든 친족명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동년배에게 많이 사용하는 언니/오빠/형 등의 용례만 나타났다. 친족명이 비친족집단에도 확대되어 활발히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호칭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이다.¹²⁾ 그러나 이와 같은 특징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방송에서 연예인들을 비롯한 출연자들이 서로 '~형', '~오빠'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¹³⁾ 이번 조사에서는 '성+이름+씨'라고 하는 호칭이 142회 사용되어 기본적인 대화의 전개를 이어가고 그 가운데 친족명이 57회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대화 참여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여성 화자는 '~씨'나 대명사로 상대방을 부르지는 않고 '오빠, 언니'와 같은 친족명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토크쇼에 나타난 친족명은 1개의 예가 있었으나, 고정출연자의 나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나이라는 것을 안 여성 게스트가 장난으로 부른 경우이며 이는 한국과 같이 친족 명칭이 확대되어 담화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12) 김광순(2015:177)에서는 일본어, 중국어와 비교하여 한국어 호칭어의 특징으로 친족어의 확대사용 양상을 조사, 보고하고 있다.

13) 신문 연예란의 칼럼 혹은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독자 의견 수렴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0082840 2016년 12월30일 검색

- (29) 이쿠보 : (고정출연자인 도쿠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나이라는 것을 듣고) パパ! パパ!
(2013/7/29)

4.4 기타

한국의 토크쇼에는 ‘대표님’ ‘간부님’ 등 직책이나 ‘선배님’ 등 관계를 반영하는 표현이 7회 등장했으나,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예는 등장하지 않았다.

- (30) 황제성 : 김국진 선배님이 그날 거의 축의금 베스트에, 탑3에 들 정도로..(2016/1/13)

위의 용례는 게스트로 나온 개그맨 황제성이 같은 직종의 선배인 김국진 등을 ‘선배님’이라고 지칭한 경우이다. 반면에 (30)의 예문은 개그맨끼리의 호칭이 아닌 경우이다.

- (31) a. 나르샤 : 같은 식구가 되기 전에는 선배님, 내지는 오빠였다면 저는 오히려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부님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간부님.(2015/11/25)
b. 김구라 : 저기 선생님...(도망가는 스텝) 선생님 어디가요, 이리로 와요. 도망가시면 우현씨 가뭇가 돼.(2016/3/9)

(31a)는 나르샤라는 여자 가수가 가수 윤종신이 사장으로 있는 기획사로 이전한 후 회사에서의 상하관계가 생겼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간부님’을 사용하였다. 관계의 변화가 호칭에 미치는 영향을 발화자 개인이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용례라 하겠다. 한편, ‘선생님’은 고정출연자가 토크쇼에 함께 있던 스텝을 부를 때 사용하였다.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상대방을 불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 예이다. 이전에 교사, 의사 등의 특정 직업군에서만 쓰이던 ‘선생님’이 2인칭 호칭¹⁴⁾으로 기능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일본어에서만 등장하는 호칭·지칭어에 사용된 용례는 팀 이름에 さん을 붙인 경우와 만담 파트너의 한쪽 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相方의 경우이다.

- (32) a. 우에다 : 改めて本日のゲスト、モーニング娘さんです。(2013/7/29)
b. 우에다 : 相方(도쿠이의 만담 파트너 후쿠이)がほしいって言ってる。(2016/5/23)

5. 맺음말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텔레비전 집단 토크쇼에 나타난 호칭어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한국의 토크쇼 ‘라디오스타’와 일본의 토크쇼 ‘샤베쿠리007’의 각각 5회분의 분량을 조사하였으며, 한국은 총 378개, 일본은 총 309개의 호칭어를 추출하였다. 이들 용례에는 토크쇼라고 하는 자료의 특성 즉, 공적인 방송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 양상과 대화 참가자들간의 사적인 관계가 반영된 대화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었다. 추출된 호칭어를 이름이 포함된 형태, 대명사, 친족어, 기타의 4분야로 나누었으며, 공통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

14) 박은하(2013:58)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2012년 발표한 『표준언어예절』의 용례를 들어 ‘선생님’이 일반화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리할 수 있다.

첫째, 이름이 포함된 호칭은 양국 모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총 378회의 호칭 용례 중 ‘성+이름+씨’가 142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일본은 총 309회의 용례 중 ‘성+さん’이 112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성+이름+씨’와 ‘성+さん’은 각각 사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대화 참여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적 방송 담화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장면에서도 이름만을 부르는 경우, 대명사를 사용하여 부르는 경우, 친족명이나 기타 사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호칭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이름에 이어 대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이다. 2인칭대명사로 분류되는 표현들은 주로 농담이나 면박을 줄 때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공통되었다. 1인칭을 나타내는 본인, 本人·自分 등이 정중한 형태의 질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용어로 전용되어 사용되었다는 것 또한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씨’ ‘~さん’ 등과 같이 이름이 포함된 형태가 일본 쪽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어는 ‘~さん’이외에 ‘~ちゃん’, ‘~くん’ 등을 붙이거나 아무 것도 붙이지 않은 ‘呼び捨て’, 별명 등, 대화참여자의 관계에 따른 바리에이션이 보다 다양했다.

둘째, 친족명이 비친족간의 호칭·지칭어로 확대되어 사용된 용례는 한국어에서만 쓰였으며, 기타로 분류한 ‘선배님, 선생님, 간부님, 대표님’ 등의 표현도 한국어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화 참가자 중 가장 연소자인 여성이 주로 친족명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다. 즉 일본어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관계가 이름을 활용한 다양한 변주로 드러나고, 한국어에서는 친족명 및 직책 등을 이용하여 대화참가자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할 수 있다.

셋째, 대명사에 있어서 양국어의 정중한 ‘2인칭’으로 꼽히는 어휘를 보면, 한국어 ‘당신’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본어 ‘あなた’는 2인칭 대명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대명사 용례에서 여성 화자의 발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또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번에 조사한 자료의 제약으로 생긴 특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장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사용된 호칭·지칭어의 용례를 채집하여 분류하고 한일 양국의 비교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각각의 호칭·지칭어가 한 장면 안에서 변화해 나아가는 양상에 대한 분석까지 다룰 수가 없었다. 성별/연령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장면에서의 분석도 추가해 나아가다면 더욱 면밀히 사회 문화와 호칭·지칭어의 관련에 대한 고찰을 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광순(2015)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사용 양상」 『한국어 의미학』 48 p.180
- 김준숙(2004) 「현대일본어에 있어서 제삼자에 대한 대우표현」 『일어일문학회연구』 48(1) 한국일어일문학회 pp.23-37
- _____ (2007) 「직장 관계에 있어서의 제3자 대우표현」 『일어일문학회연구』 63(1) 한국일어일문학회 p.177
- 나미수, 조준모(2011) 「시대 흐름에 따른 TV토크쇼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KBS 토크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연구』 15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pp.75-105
- 박경, 안승압(2007) 「한중일 친족호칭 비교연구」 『일어교육』 40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93-220
- 박은하(2013) 「호칭어 ‘선생님’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우리말글』 59 우리말글학회 pp.1-24
- 박정운(2005) 「한국어 호칭어 체계」 『한국 사회와 호칭어』 도서출판역락 p.82

- 서민정(2008) 「한국어 여성 지칭/호칭어의 변화양상」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pp.328-349
- 손준섭(2010) 「현대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pp.95-129
- 양수경(2015) 「북한의 사회생활 호칭·지칭어 연구」 『한글』 310 한글학회 pp.287-313
- 유원호, 채서영(2011) 「타이틀과 호칭어로 쓰이는 직업명: 일곱 개 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148-170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pp.173-214
- 이승민, 이승현(2011) 「'선생님' 호칭 사용에 관한 한일대조연구」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pp.283-302
- 林炫情(2001) 「韓国語と日本語の呼称に関する社会言語学的研究:親族間の上下による使い分けの現状を中心に」 『일본학보』 48 한국일본학회 pp.61-75
- 임현정(2003) 「職場における「お兄さん」および「お姉さん」の親族名稱使用に関する日韓對照研究」 『일본문화학보』 18 한국일본문화학회 pp.77-91
- 최소영(2014) 「대인관계 조절행위로서의 스피치 레벨 시프트와 성별에 따른 운용 양상」 『일본학연구』 43 단국대학교 pp.409-433
- 홍민표(1999) 「한일친족호칭의 대조적 고찰」 『일본어학연구』 1 한국일본어학회 pp.277-292
- _____ (2003) 「한일 양국인의 직장 내 호칭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45 한국일어일문학회 pp.161-180
- _____ (2012) 「부모의 형제자매 호칭에 대한 한일 대조 연구」 『일본어문학』 58 일본어학회 pp.85-102
- _____ (2013) 「한일 친족호칭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인척관계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4 한국일본학회 pp.111-128
- 石崎晶子(2000) 「電話連絡の会話における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 『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 19 お茶の水女子大学日本言語文化学会 p.62
- 鈴木孝夫(1973) 『ことばと文化』 岩波親書
- 緒方隆文(2015) 「呼称のカテゴリー分析:自称詞・対称詞・他称詞」 『筑紫女学園大学・筑紫女学園大学短期大学部紀要』 10 筑紫女学園大学 pp.1-13
- 劉寧(2016) 「日本人大学生の呼称使用について:上下・親疎・性差が及ぼす影響」 『東北大学言語学論集』 24 東北大学言語学研究会 pp.129-140
- 大橋莉里翔(2013) 「主題としての自称詞・対称詞の省略と非省略」 『札幌国語研究』 18 北海道教育大学国語国文学会
- 吳秀賢(2010) 「日本語・韓国語の人称代名詞の比較 (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語 : その感性と活力)」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 立命館大学 pp.103-111

— 〈 要 旨 〉 —

韓日兩國の呼称・指称の対照研究

本研究は、韓国・日本兩國のテレビのトーク・ショーにあらわれた呼称・指称語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韓国・日本兩國の呼称・指称語には、各國の社会的かつ文化的な特徴が反映されている。特に、話し手と聞き手の間に用いられる一人称・二人称は、西洋の人称代名詞の用法とは異なる。トーク・ショーは私的な話題で話をするが、放送という公的な領域での会話であることから、多様な面の言語様子が観察できる資料だと思われる。韓国のトーク・ショー「ラジオスター」と日本のトーク・ショー「しゃべくり007」の5回分ずつサンプリング調査を行い、「ラジオスター」からは378個、「しゃべくり007」からは309個の呼称・指称語の用例を集めた。

集まった呼称・指称語は、「～シ(씨)」 「～さん」のように名前が含まれた形・代名詞・親族語・その他の四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韓国・日本兩國のトーク・ショーにあらわれた呼称・指称語の共通点は、一つ、名前が含まれた形がもっとも多く用いられたということと、多様なバリエーションがあることである。二つ、代名詞として分類された人称代名詞・指示代名詞が含まれた表現が15%を占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軽い冗談やツッコミに用いられる場合が多いということも共通点である。一方、名前が含まれた形の呼称・指称語は韓国の「ラジオスター」より日本の「しゃべくり007」の方により多く用いれており、より多様なバリエーションがあるという違いがある。また、親族名や「先輩・先生」などの表現が日本の「しゃべくり007」にはあまり用いられていないという違いもあった。つまり、日本の方は名前が含まれた形の呼称・指称語が主に用いられ、韓国の方は名前の他に多様な形の呼称・指称語が用いられているといえる。

論文分野：語用論

キーワード：呼称語、指称語、親族語、韓日対照、トーク番組

■ 백이연(白以然)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연구원

thyako@hanmail.net

■ 박효경(朴孝庚)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본어학과 조교수

hkpark27@hanmail.net

- 投稿日 : 2016년 12월 31일
- 審査開始 : 2017년 1월 8일
- 審査完了 : 2017년 2월 5일
- 掲載確定 : 2017년 2월 17일